판타지 문학 – 성경적 조망의 가능성 탐색

신 현 호 (백석대 어문학부)

I. 들어가며

최근 '판타지'(fantasy) 소설이 유행인데, 학생들이 주로 읽는 책이 '판타지'라고 한다.작년에 출간된『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은 전 세계에서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며 우리나라 서점가에서도 한동안 베스트셀러 목록 윗자리를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판타지' 작품들이 각광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적 이성이 지배해온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태껏 '판타지'(환상)는 이성에 비해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규정받고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환상이 사라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을 따름이다. '판타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영상시대에 앞으로 더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첨단의 과학기술 발달로 우주선을 화성에 까지 보내며 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적 화두로서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환상'(fantasy/phantastik)이다. 만화, 게임 그리고 영화 등은 일상에서 벗어나 허구적 세계로의 여행을 조장하며 문학작품에 있어서도 교양을 쌓고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세계문학전집을 섭렵하던 시절은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었으며 여흥을 즐기는 도구와 방법으로서 판타지소설들이 성행하고 있다.『해리 포터』시리즈는 비틀스 이후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문화상품이 됐으며 전 세계 3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대략 5억 6천만 부 판매되었고, 그 독자는 어린 아이에서 90세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독자는 약 1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세기 판타지 소설의 으뜸이라 일컫는『반지의 제왕』은 영화의 성행으로 다시 서점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판타지 소설들이 각국의 서점을 장식하고 있다. 판타지소설은 픽션으로서 읽혀지고 있는 문학작품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출판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판타지' 문학(환상문학)을 수용해야 하는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판타지'들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서구 모방 일변도로 나가거나 괴이하고 잔인함만을 추구하는 '판타지'는 읽기를 권장할 만큼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판타지 문학에 대해 논의할 때 불가피하게 두 가지 부정적 관점이 개입된다. 그것은 '판타지' 문학이 '도피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저급문학'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Armitt 1). 그리고 '판타지' 문학에 대한 보다 심각한 오해는 '판타지' 문학을 아동문학과 연관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판타지 문학의 '환상적 동기'를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의 영역으로 비현실적 세계에 대한 개인의 유희적 탐구로 간주하거나 '판타지' 문학의 지나치게 정형화 된 구조를 비판하는 데서 온다. 그리스도인들이 '판타지' 문학을 조심해야 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외부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등을 돌리고 상상력이 꾸며낸 가상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은 신앙에 저촉되는 일이며 불미스러운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판타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판타지' 문학도 문학 장르의 한 부류로 성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판타지' 문학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톨로가 되기도 한다. 서구 미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헬라인들의 "모방" 개념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물리적인 세계는 이상 세계의 모방이다. 예술이란 그 모방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플라톤은 예술의 중요성을 깎아내렸다. 반면 모방보다는 창조를 강조한 성경은 '판타지' 문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제공해 준다(Veith 242).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판타지' 문학에 매력을 느꼈다. 판타지 문학의 위대한 선구자들 스펜서, 번연, 스위프트, 맥도날드, 톨킨, 루이스 등은 모두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오늘날 환상 문학 작가와 열렬한 독자들도 다수가 그렇다. 그들은 '판타지'의 환상적인 요소가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루이스는 '판타지'가 기독교의 진정한 기쁨과 흥분을 발견하는 방법이 될 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판타지 문학을 비난한다. 마술이라든가 악마 같은 불한당들이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는 위험할 만큼 신비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타지 문학을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 판타지 문학이 존 번연이나 루이스에게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고 선포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Veith 234).

그러므로 '판타지'에 대한 성경적 조망이 필요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판타지'의 윤리관은 기독교의 일반은총론(Common Grace)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판타지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판타지'의 문학 양식이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영국의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판타지 작품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성경과 판타지 문학 간의 관계를 주로 영국문학에 나타나는 판타지 문학의 상황을 들어 고찰하면서 좋은 판타지문학 속에 내포된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적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먼저 문학과 성경의 관계를 살피고 판타지문학의 속성을 고찰한 뒤 성경적 세계관을 이와 연관시켜 언급한 뒤 구체적으로 기독교 판타지문학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톨킨(John Ronald Reuel Tolkien 1892-1973)의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과 루이스의 『나니아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The Chronicles of Narnia*: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을 실례로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성경과 문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문학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작품 역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창조물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창조관점에서 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이란, 시 · 소설 · 희곡 · 수필 등의 문학적 양식에 의해 문서화 된 글이다. 또한 문학은 사회적 문제, 도덕적 문제, 또는 개인적 감정에 관해 생각하는 활동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문서화된 글로서 문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어의 사용이란 점에서 창조 때부터 문학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창세기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시키신 일이나,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내뱉은 경탄(“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을 들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다. 사람이 정복해야 할 땅은 채워지고 모양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지상적 영역의 전체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겐 창조적 능력이 주어졌고, 문학도 질서 있는 창조와 관련되어서 창조질서에 합해야하며, 그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Gallagher and Lundin 71-2).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창조원리에 입각한 문학적인 글은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뭐래도 성경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 섭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문학적 가치도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문학성과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문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문학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Ryken 76).”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잇사갈은 건장한 나귀로다,”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등의 은유적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헤롯을 “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며,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은유를 사용하신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문학적인 수사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며 비유적 언어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그 뜻을 이해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여 비유의 언어로 포장시켜 허구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 가상의 껍질을 곱씹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간의 여백을 통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세계에 접하게 되며 현실과 상상의 세계 사이에 놓여 진 다리를 바라 볼 수 있다.

창조원리로서의 문학은 성경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문학적인 비유를 통한 설화체로 가르치셨다는 사실도 문학의 유익이 어떠한 지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2. 판타지문학(환상문학)

환상은 설화,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전래동화 등에서 향유되어 온 서사적 재료이다. 환상적 속성을 제거하면 논리적 구성이 흔들릴 정도로 환상성은 고대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환상세계 자체가 독자적 원리를 가진 독립된 체계로 존재하기도 하고 현실과 환상세계가 상호 관계를 맺고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상상공간으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러면서 당대의 의식구조와 관련되어 역사성, 사회성을 함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판타지 문학의 전통은 모든 문명에서 찾을 수 있다. 상상력은 인간이 지닌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귀한 능력 중 하나이며 문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Veith 233).

상상력이 시적으로 예술에 작용할 때 이를 환상이라고 말한다. 문학에서 환상은 상상력의 실제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상상력이 이론적인 층위에서 작용한다면 환상은 상상력이 실제 예술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환상을 현실적 근거가 없는 공허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성주의, 즉 의식된 것만이 현실이라고 간주하는 편협한 사유세계를 드러낼 뿐이다. 무의식적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환상은 오히려 현실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더 큰 현실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판타지의 어원이 되는 '환상적'(fantastic)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판타스스'(phantasticus)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헬라어 '판타제인'(phantasein)에서 파생된 단어로 '가시화 하다, 명백하게 하다, '나타나 보이게 하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상상력을 문자로 가시화 시킨 모든 문학작품은 환상물이라고 볼 수 있다.

판타지 문학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자유롭고 허구적인 세계의 설정이 허용되는 장르이다. 판타지 문학에서의 환상적 인물과 시간과, 공간과 사건들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이러한 자아의 활동 중에서 모든 주어진 것을 넘어서려는 상상력이 산출된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환상은 이성에 의하여 제한된 자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능력인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믿음의 역할과 유사하다.

우리 마음과 상상력은 건전하게 이용될 수도 있고 타락되게 이용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좋은 환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환상을 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 영혼 내부 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양쪽 모두 영적 현실을 구체화시키고 선악을 구체적인 용어로 제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좋은 환상은 상상력을 고양시키고 훈련시키며 독자에게 선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악함을 일깨워준다. 톨킨은 환상 문학이 어떻게 회복감(우리에게 실존을 에덴에서와 같은 경이감을 갖고 보게 해 준다) 과 위안감(해피엔딩을 통한 완전함과 화해의 경험) 과 도피감(현대 생활의 편협한 물질주의를 초월하게 한다)을 제공해 주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은 환상 문학은 장대함과 의미가 담긴 우주를 그린다. 선과 악은 절대 도덕의 문제이다. 미덕의 원칙은 엄격하며 벅차지만, 광채로 번쩍인다. 악은 추악하게 그려진다. 독자의 도덕적 감수성이 예리해지고 영적 진실은 두드러진다(Veith 239-40).

반면, 나쁜 '판타지'는 오로지 자아에만 관심을 둔다. 많은 현대 '판타지' 작가들은 독자에게 백일몽을 그려 주는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작품들은 대중문화의 요구에 맞춰, 자기 만족감을 위해 씌어진 작품들이며 상상력을 고양시키거나 어떤 가르침도 주지 못한다. 폭력과 마술에 관한 많은 소설들은 가죽과 금속으로 몸을 두른 건장한 전사가 적들을 짓이기고 고분고분한 처녀를 차지하는 모습을 그린다. 분명히, 이들 책은 남자들의 꿈을 투사해 놓은 것 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크고 힘세져서 아무도 나를 경멸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혼내 주고, 성에 관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그런 꿈 말이다. 이런 공상은 , 좌절하고 고독한 마음의 표시이다. 이런 '판타지'는 대개 도덕적으로 나쁠뿐더러 미학적으로도 좋지 못한다. 고립된 자아는 악의와 타락의 원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의 어두운 면을 한없이 쫓아가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파우스트처럼, 마법사 놀이를 하고 놀다가 자신의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은 환상 문학이 아닌 끔찍하고 무자비한 현실이다. 반면, 좋은 판타지 문학은 상상력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 준다.

'판타지'에서 제시되는 환상세계는 현실에서 없는 시간과 공간, 존재의 등장으로 현실의 합리성을 거부하지만 현실의 모순과 갈등, 근원적 문제를 이끌어 냄으로써 현실과 관계된 세계이다. 이는 환상세계가 법칙성과 연관된다. 현실세계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환상세계에도 그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법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온전히 작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며 작가는 자신이 만든 법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한다. 판타지는 허황된 이야기 속에 비현실적인 존재가 마구잡이로 출몰하는 기이한 이야기가 아닌 합리성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엄격한 사실주의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하며 이야기 전개과정을 통해 논리

성과 신빙성을 획득해야 한다. 좋은 판타지란 '상상과 현실, 이상과 실재 사이의 화해와 일치를 꾀하는 것'이다(김서정 24).

판타지 문학은 내부의 삶을 투사하고 무형의 것을 상징화하므로, 그 본질상 영적 문제를 제기한다. 선악간의 싸움, 마음 내부의 투쟁, 한 영혼을 높고 벌이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경쟁, 이런 중대한 진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지만, 판타지 문학은 이런 것을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영적인 것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판타지 문학이 영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신비주의를 구현하고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고 미덕을 북돋는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판타지 문학(훌륭한 판타지 문학)은 기독교 편에 서 있다(Veith 234).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히 11:1)와 신비스럽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진리와 관계된다. '판타지'에서 작가는 상징으로써 이런 내적 삶과 보이지 않는 진리를 구체화할 수 있다. 좋은 '판타지'에는 사실이라는 테가 둘러져 있다. 요정 대모와 마법의 숲과 말하는 동물들이 등장해도 동화는 인간 본성의 숨겨진 사실 면에서는 대단히 정확하게 사실주의적이다. 판타지 문학은 이런 심리적 · 영적 사실을 파헤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나, 이것은 그 모든 상상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의 모방이다. 훌륭한 판타지 문학 작품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랑을 증진시킨다.

판타지 문학에서 이상적인 세계의 현현은 '사랑'을 바탕에 둔다. 환상세계의 마법은 '사랑'을 전제하며 사랑은 세계와 사물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판타지 문학의 작가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주시하며 그 감성의 중심에 사랑을 두고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한다.

판타지 문학의 의미는 환상세계가 창조해 내는 낯선 공간과 신비로운 인물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환상세계가 우리의 현실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또 반영한다는 점이다. 환상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혹은 외면해 버리고 싶은 인간과 삶의 모순되고 절망적인 측면을 드러내 보이기도 또는 그 모든 것이 치유되거나 회복된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 어떠한 면에서이든 판타지는 희망과 가능성을 형상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인간의 창의력을 입증한 장르로서 제 역할을 한다.

3. 성경적 세계관과 판타지 문학의 세계관

판타지 문학의 세계관은 분명 성경 중심의 세계관과는 차이가 있으나 우리는 판타지 문학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작가인 체스터튼(G. K. Chesterton)은 기독교의 진리와 '판타지'의 한 유형인 전래 동화의 윤리를 비교하면서 "신데렐라에도 마리아의 노래(눅 1: 46-55)에 담긴 교훈과 동일한 교훈이 있다. 즉, 비천한 자가 높아지리라는 교훈이다. 미녀와 야수에는 큰 교훈이 담겨져 있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전에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Veith 256). 이는 전래동화의 윤리관이 기독교의 '일반은총론'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은총론'이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완전한 흑암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생활과 역사와 문화를 간섭하신다는 칼빈의 사상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주와 인간 자신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행 14:17). 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4-15)라고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보편적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루이스는 전래 동화가 기독교의 진정한 기쁨과 흥분을 발견하는 방법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상의 세계 속에 집어 던져 버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와 주일 학교적인 요소를 없애 버리면 처음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Veith 254).

3.1. 세계관의 정의와 성격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을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일련의 전제(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옳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가정)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ire 30). 그러므로 세계관은 신학이나 철학 같은 사고의 체계가 아니라 세계관은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삶에 대한 그 사람의 모든 견해를 나타내는 세계관이 깔려 있다. 그러한 근본적인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철학자나 학문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

세계관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삶에 대한 시각'(vision of life)이다. 즉, 세계관은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을 제공한다. 둘째, 세계관은 단순한 삶에 대한 시각은 아니라 언제나 '삶을 위한 시각'(vision for life)이다.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며 그것에 의해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한다. 셋째, 세계관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향해 나갈 세계의 모델을 제공한다. 각 세계관은 하나의 종말론, 즉 미래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며 이것은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 방향을 지시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관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는 것이다. 사실 참된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Walsh & Middleton, 1984: 31-33).

인간의 문화 활동은 어느 것이나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문학작품의 세계관은 주제와 더불어 문학적 인물들의 정체성을 관찰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실험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체험의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Ryken 16)

3.2. 성경의 세계관

성경이라는 제목 자체에는 "작은 책들"이라는 뜻이 있다. 성경은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작품집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설명적인 동시에 문학적인 저술이 포함된 대형 작품집"이기도 하다(Ryken 14). 프라이(Northrop Frye)는 *The Great Code*의 서문에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였다(xiii). 즉, 그것은 시간이 시작하는 곳, 세상의 창조와 함께 시작하고 시간이 끝나는 때, 요한계시록과 함께 끝나며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의 역사를 개관한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더

정확히 말하여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이다. 곧,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 하시는 인간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보여준다. 창세기 첫 두 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낙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짧지만 평화스러운 이 기간에 하나님은 이야기의 무대를 설정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였고 선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왜곡되고 오염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인간은 그 사탄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은 구약의 나머지와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에게 하신 언약의 실행이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 예수는 세상에 대한 사탄의 지배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공격을 직면하고 있고 최후의 적, 사망을 직시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 영적 전쟁을 수행 중인 군사들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는 자의 삶을 싸움에 비유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라고 쓰고 있다.

성경은 사탄이 아직 그 세력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섰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전쟁에 항거하는 효과적인 무기를 주신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전쟁이 끝나고 원수가 파멸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예언하고 있다.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사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세상의 모든 인간사, 세상사,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리킨다.

3.3. 판타지 문학의 세계관

환상 문학에는 “실제로 일어날 법하다”고 느껴지는 데가 있어야 한다. 즉, 사실과 비슷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믿겨져야 한다. 모순되는 부분이나 이렇다 할 동기가 없는 등장인물들, 일관성 없는 줄거리는 독자에게 불신을 심어 준다. 좋은 환상 문학은 그 가상 세계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인과관계도 지켜진다. 의혹을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법칙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충실한 공상 문학의 예는 동화이다. 동화는 수세기에 걸쳐 구전되고 또 다시 구전되면서 형성된 민속 문화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동화는 인간 경험과 문화적 지혜의 저장고이다. 체스터튼은 “요정 나라의 윤리"와 동화가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Veith 255). 그러므로 우리는 동화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환상문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성경과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환상문학의 구성도 선과 악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은 판타지에는 선과 악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모호한 것은 없으며 선과 악,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추함과 같은 양극단의 특징이 다루어진다고 보았다(Veith 257). 이 가운데에서 판타지문학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절대주의적 이상주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동화의 세계도 위험하지만, 실제세계 역시 그렇다.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는 과장일지 모르나, 아동학대자들과 아동 상대 치한들은 실제로 있다. 하지만 판타지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는 달리 엄격하며 대단히 공정하다. 악당에게 예정된 종말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종결감을 심어 준다. 사람들은 "악당"들이 겪게 되는 가혹함에 절대로 동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이 넘치도록 보답을 받고 악한 사람들(선한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자)이 끝장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 그런데 판타지에서 대개 선한사람들은 유약하고 온순하게 그려지는 반면 악한 사람들은 강인하고 거칠게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은 냉혹한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판타지에서 결국 선한 사람들이 생존하는 부적자 생존의 윤리관을 보여준다.

훌륭한 문학은 단지 내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지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자가 찬미하고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선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교훈을 줄 수 있다. 좋지 못한 문학은 독자가 악한 인물을 닮고 싶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부도덕을 가르칠 수 있다. 판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라는 변함없는 끝부분이다. 그러므로 동화란 대단히 희극적이다. 판타지는 문제의 발단이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지고의 행복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여준다.(Veith 263). 그러므로 판타지의 세계관에는 인생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

인간의 삶을 선과 악의 갈등 구조로 보는 것이나 선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점에서 판타지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흡사하다. 그러나 선과 악의 개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성경에서의 도덕적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빌 3:9). 또한 성경은 악한 영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인 이원론, 즉 선과 악의 힘이 최고의 수준에서 동등하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성경은 시초부터 악한 영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종속되어있다고 말한다.

반면 판타지문학의 화자들은 그 도덕적 선의 가치 기준을 인간의 양심이나 비인격적인 법으로서 보았으며 인간에게 그러한 속성을 부여한 인격적 '신'(God)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3.1. 인물의 유형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그러나 둘의 비중이 똑같이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기준 점이 되신다. 성경적으로 "의로운"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을 규명하며 이를 위해 성경의 작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규범적 가치 기준으로 드러내는 이상적인 인물과 행위를 그린다. '율법'이란 단지 십계명이나 모세의 법이 아니라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

한다(Stott 8). 또한 성경에는 부정적인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도 등장한다. 즉, 성경은 독자들이 열심히 따라 배울 수 있는 도덕의 본보기를 제시하며, 독자들이 피해야 할 악행의 예들을 그린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면 판타지의 주인공은 인간이며 그 중에서도 선한 인간이다. 초인간적인 존재나 마술적 존재가 모티브가 되고 있으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다. 판타지에서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통해 형상화, 구체화되고 있다. 선은 힘이 없는 백성, 가난한 자, 부모 잃은 어린이, 아름다운 처녀, 용감한 왕자 등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악은 지배자, 거인, 용, 마녀, 뱀, 악인, 마녀 등으로 상징화된다. 선과 악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인물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인물의 내적, 외적 특징은 매우 단순하고 명백하며, 중요하지 않은 세부 묘사는 생략된다. 어떤 아들은 바보스럽고, 다른 아들은 영리하다. 어떤 딸은 미덕을 갖추고 부지런한 반면, 다른 딸은 비열하고 게으르다. 또한 인물들은 아름답지 않으면 추하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악인은 큰 힘을 발휘하지만 잠시 동안만 주도권을 갖는다. 악인은 선한 주인공에게 가야 할 자리를 잠시 동안 갖게 되나 무대 가운데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선의 힘이 우선 되며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과 판타지의 인물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성격은 대립되어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들의 특징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따라야 할 예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쉽게 만든다. 그러나 두 장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은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판타지의 인물들은 선험적인 도덕률, 혹은 인간의 양심에서 그 기준 점을 찾고 있다.

3.3.2. 결말의 구성

성경은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의 인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을 약속한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최고의 위안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다. 기독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으나(마 12:28; 눅 17:21, 8:1) 이 왕국은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 내부에는 아직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악한 세력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를 공격한다. 그러나 세상 끝나는 날에 사탄과 불신자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며(벧후 3:6-7),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곳에서는 인격이 완성되며, 즉 성화가 이루어지며(빌 3:21), 결코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 요한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혼인에 비유한 것은 성경의 은유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요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는 성도를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모든 진정한 열망과 인류의 요구들의 성취를 의미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종식될 것이다.

판타지에서도 선과 악의 대립은 결국은 약하지만 선한 자가 강하지만 사악한 자를 이김으로써 종말을 맺는다. 판타지에서 선한 자는 보상받고 악한 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베텔하임은 기독교인은 아니나 판타지의 결말에 대한 그의 해석은 성경의 종말론과 놀랄 만큼 일치한다(Veith 261). 그에 의하면 판타지의 행복한 결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격의 통합과 누군가와의 영원한 관계의 성립이다. 이러한 관계는 악을 벌하고 제거

함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완성을 상징한다. 모든 좋은 판타지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권선징악의 결말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그림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칼빈은 요한복음 1장 5절을 주석 하면서 "부패한 본성에 아직도 남아 있는 빛에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는 바, 첫째는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며, 둘째는 그들의 양심 가운데 새겨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89). 따라서 판타지에서 보여주는 권선징악의 주제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을 알지 못했을 때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절대자에 관한 "성스런 지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3.3. 환상적 요소

환상이란 장소, 사건, 인물의 비실제적인 성격에 의해 구별된다. 동물들이 초자연적 세계에서 말하며, 사물이 느낄 수 있으며, 시간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도 하며, 인간이 초인간적인 공로를 세우기도 한다.

성경은 영적인 실체가 세상의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신비롭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 사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볼 때, 혹은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창 28:16-17)라고 외칠 때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포착된다(Ryken 17).

신약에서 예수가 보여주는 기적도 영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기적(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2:1-11,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4: 46-54, 마비된 자를 치료한 것: 5:1-18, 오천 명을 먹인 것: 6:5-13, 물 위를 걸은 것: 6:16-21,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것: 9:1-7, 나사로를 살린 것: 11:1-44)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왕국의 도래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치유 사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시작된 병과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자신의 왕권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편, 성경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성경 자체도 자주 환상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데 동의한다. 라이컨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설교나 신학적인 요약이 아니라 시와 묵시이며 이 모두는 문학적 형식이며,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시편을 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23: 1),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33: 6)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17: 9). 그리고 선지서나 계시록의 환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신화적인 낙원, 말하는 짐승, 신들, 용, 천사, 꿈, 많은 기적, 다른 세상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 그래서 톨킨은 "복음은 전래 동화 혹은 전래 동화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더 큰 종류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경이로운 것들, 즉, 기묘하게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한다(Manlove 2).

성경의 일부를 환상 문학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환상이므로 환상에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신앙과 환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Veith 249).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내적 삶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문화가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물리적인 물체로 이루어진 실재를 훨씬 초월한다. 기독교인의 상상력에 대해 쉐퍼(Francis Schaeffer)는 "기독교인은 진실로 자유인이다. 기독교인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

다. 이것 역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인 것이다. 기독교인은 뭇별을 넘어서까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한다(Shaffer 45).

판타지에서 나타나는 환상적 요소는 의인화된 동물, 의인화된 무생물, 초현실적 존재, 마술적인 장소, 신비한 물건들이다. 이러한 환상적인 요소는 판타지에서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지게 하며, 그곳에서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더불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 인생에는 표면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초자연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에 추진력을 부여하며 이야기의 구성과 등장인물의 성격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로 판타지에서 마술과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는 선과 악의 문제와 피할 수 없이 결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Timmerman 73). 주인공이 마술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때 그는 선하거나 악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마술이 악한 인물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것이 되나,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은혜가 되며 기적을 낳는다(O'Brien 47).

성경과 마찬가지로 판타지도 환상적인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인간의 내적 삶을 투사하고 상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유형화한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드러내며, 당면하고 있는 세상의 상황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판타지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판타지의 주인공이 인간인 것에 반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일관한다. 판타지에서 진실한 영웅은 약한 소녀나 힘 없는 아이들, 모험심 많은 아이들 등에서 표출되는 선한 '인간성'이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과 동화는 진리의 기준점에서 일치함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실재를 보는 방법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것은 두 가지 세계의 인식과 초월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동화와 성경은 인간과 자연의 사건들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인다. 즉,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물리적 세계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와 지상의 질서에는 늘 상호 침투 현상이 있다는 초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판타지와 성경의 경우에 그것은 영원한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4.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나타난 성경적세계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학을 기독교성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경건 문학'이다. 이것을 채드 월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영혼 등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책과 교회 생활, 목사, 독실한 영혼 등과 같은 단어를 다루는 책"으로 묘사한다(Ryken 197). 둘째는 『'나니아』 유형'의 문학이다. 이 작품에 예수, 하나님, 성령, 십자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슬란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여기서 기독교성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셋째는 『'반지의 제왕』 유형'의 문학이다. 이것도 기독교적 작품이지만 여기서 기독교성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세 종류의 기독교문학 유형은 각기 장점을 갖고 있으며 모두를 필요로 한다. '경건 문학'이 좀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반면, 독자층은 그리스도인들로 한정된다. 반면에 『'반지의 제왕』 유형은 비그리스도인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접근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기독교성을 발견하는 독자나 관객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수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니아』 유형'은 그 중도에 위치한다. 『'반지의 제왕』 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나니아연대기』 에서 기독교성을 비교적 쉽게 발견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작품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것이다. 세 유형은 작가 자신의 취향과 주제 의식에 따라 선택할 문제다.

4.1 『반지의 제왕』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의 하나로 *Time*지가 선정한 20세기 영미문학의 10대 걸작으로 선정된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은 루이스의 『나니아연대기』 와 더불어 20세기 기독교 판타지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법사가 등장하는 『반지의 제왕』 이 기독교 작품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 사실 『반지의 제왕』 에는 직접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드러내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법사와 요정, 호빗이라고 불리는 키가 작은 족속들, 중간계라는 상상의 세계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반지의 제왕』 이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우선 이 작품이 기독교 전통에 따른 선악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등장인물들을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들이 대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지의 제왕』 은 실제의 세계가 아닌 상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사우론이라는 악의 존재가 절대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는 보통의 사람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반지이다. 사우론의 암흑군대에 맞서 싸우던 인간과 엘프 연합군은 패전 직전 사우론의 힘의 원천인 절대반지를 빼앗아 세상(중간계)을 구한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이실두르에 의해 반지는 파괴되지 않고 남겨진다. 이실두르가 살해당한 뒤 그 반지는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골룸이라는 괴물에게 발견되어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절대반지는 난쟁이보다 크고 인간보다 작은 호빗 족의 빌보 배긴스의 손에 들어간다. 하지만 빌보 배긴스는 조카 프로도 배긴스에게 반지와 재산을 모두 주고 요정의 땅으로 떠나고, 프로도는 현자인 마법사 간달프를 통해 절대반지의 비밀을 알고 그 반지를 버리러 가는 임무를 맡았다. 사우론은 암흑탑에 은거하면서 반지를 찾기 위해 암흑기사들을 호빗의 땅으로 보내고, 프로도는 이를 피해 친구인 샘과 함께 리벤델로 간다. 그러나 엘프의 땅 리벤델 역시 반지를 지킬 힘이 없다. 사우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반지가 만들어진 운명의 산 불구덩이에 반지를 던져버리는 것. 프로도와 샘을 비롯한 피핀, 메리, 마법사 간달프, 기사 아라곤, 곤도르의 전사 보르미르, 요정(Elf) 레골라스, 난장이(Dwarf) 김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지원정대를 결성하고, 사우론의 군대는 반지를 빼앗기 위해 위협을 가해온다. 그리하여 반지원정대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과 반전이 거듭되면서 마침내 절대반지는 파괴되고 중간계에는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 1부의 반지원정대, 2부 두개의 탑, 3부 왕의 귀환 모두는 이 반지를 버리러 가는 도중에 겪는 일들과 전쟁, 그리고 그 와중에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절대반지를 두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압권인 것은 인간의 심리묘사이다. 절대반지를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선한 양심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반지의 제왕』 은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에 할 것 없이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해석 역시 보는 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작품을 쓴 톨킨은 가톨릭 신자이며 스스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혔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커트 부루너는 톨킨이 C. S. 루이스가 신앙을 갖도록 도와줄 정도로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훌륭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상소설 작가인 스티븐 로헤드도 그 두꺼운 '반지의 제왕'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유하는 문장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며 톨킨의 신앙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독교 작가가 쓴 작품은 모두 기독교 문학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의 관점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몇 가지로 고찰해 보면 먼저 이 작품에는 뚜렷한 선과 악의 구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우론을 정점으로 하는 악의 세력, 중간계와 인간들이 추구하는 선이 서로 부딪힌다. 선을 대표하는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이 악을 대표하는 사우론이 만든 반지를 버리러 간다는 점은 얻으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 소설의 교훈이라 하겠다. 또한 톨킨은 우리에게 악이란, 버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간달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난 회색이었고 지금은 백색이지만 여전히 흑이 더 강하다."(2.155)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그리스도를 통한 선이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아직도 큰 것이다.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선 · 악의 갈등과 투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다음으로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반지원정대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반지 원정대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우론의 기수들 역시 9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르다. 사우론의 기수들은 악령에 씌어서 안개와 같은 형상으로 매우 비슷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지원정대는 다르다. 모습도 출신도 계급도 다른 9명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교회 역시 인종도 계급도 없이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다. 반지원정대가 구성될 당시 엘론드는 말한다. "여러분의 의지를 구속하는 맹세나 약속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뜻대로 돌아갈 분은 떠나십시오."(1.138) 교회 공동체는 맹세나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끼리의 신뢰로 이뤄진 것이다. 물론 그 길에서 끊임없이 서로 의심하고 갈등한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절대반지를 갖고 싶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도 한마음이 되어 유혹과 난관을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지만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하지만 반지 원정대가 역경과 고난을 뚫고 결국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교회 역시 모든 것을 이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형제요 자매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삼위가 하나 되어 일하신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 가야하는 것이다. 성경적세계관에서 볼 때 진정한 회복은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지의 제왕』에서 또한 골룸을 통해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범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골룸은 우리 보통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역시 원래는 스미골이라는 평범함 청년이었지만, 절대반지를 가지기 위해 친구이자 사촌인 디골을 죽이면서 타락

한다. 그는 반지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그 반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찾기 위해 세상에 나온다. 그는 프로도의 길 안내를 자처하면서 호시탐탐 반지를 노리지만 결국 끝에서 프로도가 반지의 힘을 이기지 못해 반지를 끼자 빼앗기 위해 손가락을 물어서 빼앗다가 결국 불의 산 깊은 곳에 반지와 함께 빠져 죽게 된다. 우리는 골룸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골룸은 내면의 선과 악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악에게 져서 사악하고 타락하여 보기에도 흉하게 변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탐하며, 목적을 위해 거짓말도,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프로도 역시 골룸과 같이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도는 반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운반해서 버릴 수 있는 인간처럼 나왔으나, 그 또한 마지막에 절대반지의 유혹에 져서 그 반지를 소유하려고 한다. 결국 프로도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

골롬과 프로도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은 직감적으로 이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중간계의 종족들은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힘이 부족한 그들은 요정 엘레베스를 믿는 믿음이 있다. 엘레베스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 그 뿐 아니라 샘과 프로도를 위해 더 큰 존재에게 간청하는 인물로 묘사되어지기도 한다. 프로도가 마법사 왕의 칼에 큰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부른 엘레베스의 이름 때문이라고 간달프는 말한다. “그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것은 바로 엘레베스라는 이름이다." (1.210) 악의 화신 사우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엘레베스이다. 이런 면에서 엘레베스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성령의 모습이기도 하다.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 후 왕의 귀환의 때가 온다. 중간계는 질서를 되찾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간달프는 그 때를 가리켜 "그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다(3.88). 아라곤은 톨킨이 말하고자 하는 희망의 존재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요정세계에 있을 때 그들은 아라곤을 희망이라는 이름의 에스텔이라 불렀었다(3.338). “아라곤이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과거 바다의 왕들처럼 키가 큰 그는 주위의 사람들보다 한 층 두드러져 보였다. 고대의 인물들처럼 나이 들어 보이면서도 넘쳐흐르는 젊음이 가득한 그의 이마에는 지혜가, 손에는 힘과 치유력이, 주변에는 후광이 둘려져 있었다. 그 때 파라미르가 외쳤다. 보라 왕이로다!(3.246)" 꼭 이러한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더라도 희망의 존재에 대해서는 톨킨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마지막 싸움 후에 샘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일어나고 보니 근처에 간달프와 프로도는 물론 모두 그대로였다. 샘은 간달프를 올려다보고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모든 슬픔이 진실이 아니게 될까요?”라고 외친다(3. 276). 이 때마다 톨킨의 대답은 항상 ‘예’이다. 요정 여왕 갈라드리엘과 작별하면서 트리비어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이에 갈라드리엘은 “세상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봄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대답한다. 드워프 김리가 낭독하는 시에서도 이 주제는 드러난다. 드워프의 왕의 죽음을 노래한 시인데, 끝 부분에 ‘그는 돌아온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톨킨의 입장이다. 『반지의 제왕』 전편에는 다가오는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며 현재의 모든 슬픔을 걷어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강하게 암시되고 있다. 성경적세계관에서 보여주는 구속과 회

복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지의 제왕』은 단지 악의 응징과 파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후의 승리 후에 잡혀온 사루만과 프로도는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또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습니다. 타락해버린 그를 치유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 그를 그냥 보내주는 것이 좋겠어요(3.299)." "꼬마 녀석 많이 자랐군. 이젠 현명해지고 잔인해졌어. 너는 내 복수의 달콤함을 빼앗아 갔고 거기에 자비의 빚까지 보태주니 나는 이제 쓰라림만 안고 가는 수밖에 없겠군."(3.299) 이 작품이 우리에게 기독교적으로 읽히는 것은 선과 악의 강렬한 대비, 소유욕망의 허상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또한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4.2. 『나니아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나니아연대기』는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29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8,500만부나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는 작품일 뿐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마지막 전쟁』으로 아동문학 최고의 영예인 카네기 상을 탔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책이다.

『나니아 연대기』는 책 제목처럼 가상의 나라인 나니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쓴 판타지 아동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다.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는 폭격을 피해 어린이들을 한적한 시골로 보내는 집이 많았는데, 루이스도 자기 집에 아이들 넷을 받았다. 루이스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나니아'는 '아슬란'(Aslan은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이다)이라는 사자가 창조하였다. 이 나라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동물들과 신화에서 나오는 켄타우로스나 산양인간, 난쟁이, 거인 등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이다. 하지만 나니아는 무서운 하얀 마녀의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하고, 폭군의 지배에 신음하기도 하며, 교활한 원숭이와 사악한 다른 나라로부터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지구의 세계에서 건너온 아이들과 나니아의 창조주인 아슬란의 도움으로 나니아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아슬란이 세운 나니아는 영원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카롤멘과의 최후의 전쟁을 끝으로 나니아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아슬란의 나라 즉 영원할 새로운 나니아가 세워지게 된다. 그 새로운 나니아는 아슬란에게 사랑의 미소을 보낸 자들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다.

이 책의 초고를 읽은 그의 친구 톨킨은 이 작품이 노골적으로 기독교적 알레고리가 드러난다고 평할 정도 『나니아 연대기』는 명료하게 성경적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니아연대기』는 '나니아의 창조와 악의 기원'(마법사의 조카』)으로부터 출발해 '십자가 수난과 부활'(『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을 거쳐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마지막 전투』)에 이르는 방대한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라고 루이스는 판단했을 것이다.

『나니아 연대기』의 총 7권은 '나니아'의 창조부터 멸망과 새로운 '나니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각 권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다. 이 책의 형식인 '나니아'의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재창조로의 과정은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의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작품은 각 권마다 선과 악의 대립구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여 '나니아'가 뒤틀림과 타락에서 회복되어지는 형식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그리고 인간 세계의 주인공들은 '나니아'에서의 험난한 모험들과 아슬란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뒤에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인 성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나니아 연대기』의 내용상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이지만, 출시순서로는 가장 처음 출판되었던 책이다. 이 작품은 아슬란이 '나니아'를 건설한 지 60년이 지난 후에 페번시가문의 네 아이들이 행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아이는 2차 세계대전의 공습을 피해 런던을 떠나 시골의 한 늙은 교수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 교수의 집은 너무 크고 넓어서 집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 수 있을 정도였는데, 숨바꼭질을 하던 어느 날, 막내 루시는 어떤 방의 옷장 안에 들어가 숨게 된다. 그러나 이 옷장은 평범한 옷장이 아니었다. 바로 '나니아'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이다. 이 문을 통해 피터와 수잔, 에드먼드와 루시는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들어가게 된 '나니아'는 말하는 동물들과 신화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나니아'에는 하얀 마녀 제이디스가 거주민을 거의 학살하고, 적들을 모두 석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그녀는 '나니아'를 크리스마스가 없는 영원한 겨울 상태로 만들고서 자신은 여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었다. 나쁜 하얀 마녀에 의해서 언제나 겨울만 계속되는 곳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이들은 곧 나니아인들과 친구가 되고, 비버는 네 아이들에게 하얀 마녀의 사악한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하얀 마녀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슬란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과 해방자인 아슬란이 오고 있으며, 다음 날 돌 탁자에서 아슬란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준다. 이들은 아슬란을 만나기로 한다. 그러나 전에 몰래 혼자 나니아에 와서 마녀를 만나 맛있는 터키젤리를 얻어먹었던 에드먼드는 터키젤리의 유혹과 혼자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나니아인들과 아이들을 배신하고, 마녀의 편에 서게된다. 한편,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에 의해 인간들이 '나니아'에 들어온 소식을 듣고, '나니아'의 전설 즉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가 케어 패러벨 성의 왕좌에 앉을 때, 악은 시대가 끝나리라."는 예언을 막기 위해 이들을 처치하려고 한다. 하얀 마녀의 편이 된 에드먼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비버는 아슬란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충고한다. 돌 탁자가 있는 언덕에 도착한 아이들은 나니아의 모든 선한 피조물들에 의해 옹위되고 있는 아슬란을 목도한다. 마침내 아슬란이 '나니아'에 오게 되고 그가 '나니아'에 오자, 눈이 녹고, 얼었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니아인들과 아이들은 아슬란과 힘을 모아 하얀 마녀와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얀 마녀는 본래 바다 황제(아슬란의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으로서 '나니아'의 모든 반역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마녀는 에드먼드가 반역자임을 상기시켜서 반역자는 사형이라는 법에 의거하여 에드먼드를 죽여 어떻게든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에 아슬란은 마녀와의 협상 끝에 자신이 에드먼드 대신에 죽겠다고 자원한다. 아슬란은 적들에게 묶여 침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결국 하얀 마녀에 의해 살해 된다. 다음 날, 수잔과 루시는 아침 햇살 속에 부활한 아슬란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본다. 마녀는 몰랐지만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바치면 돌 탁자는 깨지고 죽음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더욱 심오한 마법이 있었던 것이다. 부활한 아슬란은 다시 한 번 마녀와 싸워 마녀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끈다. 아슬란은 네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어주고, 예언대로 네 아이들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고, '나니아'는 처음 만

들어졌을 때의 평화를 되찾게 된다. 나니아를 통치하던 어느 날, 아이들은 흰 수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나니아에 들어왔던 통로인 옷장을 통해 다시 노교수의 저택으로 돌아온다.

루이스는『나니아연대기』의 문학적 행태를 '가정해 보기'라고 규정한다. 나니아와 같은 말하는 동물들의 나라가 존재하고, 인간 세상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사자가 되셨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루이스는『나니아연대기』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인정한다. 그 이야기는 "나니아와 같은 세상이 있는데, 거기 악이 들어와 타락해 가므로 그리스도가 그 세상에 가서 구원하신다면 어떤 일이 전개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루이스 자신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사자로 등장하는가? 그것은 나니아가 말하는 짐승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분이 인간으로 되셨듯이, 말하는 짐승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말하는 짐승으로 되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자가 모든 짐승들의 왕으로 인정되는 점과 사자를 그리스도에 인유하는 성경 구절들(창 49:9-10; 계 5:5)도 그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나니아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상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마녀에 의해 크리스마스도 없이 항상 겨울인 '나니아'는 죄로 인해 오염되어져버린 세상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리고 오직 아슬란에 의해서만 해방될 수 있는 '나니아'의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고, 에드먼드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아슬란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슬란에 의해 이전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 '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회복된 피조세계를 상징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창조-타락-구속-회복 의 성경적세계관의 구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아슬란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난다.

루이스는 상상의 삶을 통하여 얻었던 진정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판타지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좋은 것은 모두 상상에 속해 있고 실재하는 것은 모두 악하다는 주장에 그는 관심이 많았다(『예기치 못한 기쁨』247). 루이스는 자신의 삶을 외적 삶과 상상의 삶으로 나눈다. 상상의 삶은 다시 '환상'과 '헛된 희망'으로 구분된다. '헛된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 즉 대부분의 몽상과 관능적이거나 야심적인 환상들은 상상의 삶이 아닌 외적 삶에 포함된다. 따라서 루이스는 상상의 삶을 '순수한 환상'이나 '세례받은 상상력'이라고 표현한다. 상상의 삶은 루이스 자신이 말하는 '기쁨'과 관계된다.

루이스는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상이 적합하다고 여겼다. 현실세계의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상상의 삶이 하늘의 진리를 그 나름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기쁨을 찾는 상상의 삶이 속임수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기쁨이 진정한 대상을 찾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루이스에게 좋은 상상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이다(『예기치 못한 기쁨』314). 루이스는 상상의 삶을 통해 천상의 실재적인 것을 깨우칠 수 있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현재의 삶이 실재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한다. 루이스는『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천국은 실재 그 자체이며 철저히 실재적인 것이야 말로 천상의 것이라고 주장한다(90).

킬비(Clyde S. Killby는 루이스가 사물의 기독교 존재 방식에 대해 유추하기 위해『나니아 연대기』를 썼다고 말한다(Killby 172). 판타지 문학은 초월세계와 절대자에 대해 잘 설

명하고 있다. 루이스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말씀을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III. 맺음말

이 글은 판타지문학에 대한 성경적 조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 시론적인 연구이다. 판타지문학에서 나타난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은 차이점과 더불어 많은 점에서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환상'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의 말년은 환상없는 시대였으며, 영적 상상력이 고갈된 시대였다. 그리고 그 시대는 믿음없는 시대였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미지 부재의 시대였으며, 하나님이 이뤄주실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대였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였는가?
우리에게는 '종교지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 상상력이다. 이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리고 미래를 본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을 환상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허구를 외부 세계와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주제적 · 상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환상문학은 실제의 인간 경험을 해석해 주며 도덕적 · 영적 진리를 상징하는 이상화된 본보기들을 제시한다. 환상문학의 상상력의 결과가 성경적인 상상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판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용된 표현들에 얽매이기보다, 작가의 의도나 혹은 작품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면서 먼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인지 추구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것과 성경과의 연관성을 기독교세계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비록 표현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다 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작품의 성격이나 작가의 기호,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나 언어의 한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받은 『해리포터』 시리즈는 '한계상황 속에서 적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승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작품은 한결같이 우정과 책임 및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정의에 대한 감각도 잃지 않고 있다. 마법은 어린이들이 꿈꾸었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한 수단일 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역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어른들이 잊고 있는 아이들만의 세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표현된 것들이 비록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물론 상상력을 남용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첫 번째 계명에 따라 오직 여호 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상상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다. 우상

이었던 존재들을 여호와의 피조물로 옮겨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은 선지자들의 비전을 받아 들이고, 또한 역사를 구속사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여호와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이방종교의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색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적인 상상력이 그만큼 더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당대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영화 속의 상상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

성경적인 상상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력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지시하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믿음이다(히 11:1). 믿음의 세계는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상하는 힘을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다양한 소재를 갖고 집필되는 판타지 혹은 픽션 형태의 서적이나, 이것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영상세대들을 위한 이야기의 한 변형일 뿐이다.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로 보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판타지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대답을 줄 수 있다. 마법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에게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판타지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상상의 세계로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거울처럼 현실에 대한 또 다른 거울일 수 있음을 말해 줄 수 있다. 또한 마법과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자연주의는 기적을 부인하지만, 기독교는 기적이 가능함을 가르치며,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동시에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며, 이 세력과 이들의 힘을 입은 자들도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애굽의 술객(術客)들도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악한 영들의 마술 사이에 내재하는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그 능력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한다면, 복음의 메시지에 보다 더 가깝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판타지문학은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위안이 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상상하게 하는 문학이다. 흔히 판타지 하면 관념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의 옷을 달리 입었을 뿐 속 알멩이는 삶이 들어있는 문학, 삶에서 나와 삶으로 돌아가는 문학인 것이다. 판타지 문학은 그 주제에서 외부 현실보다는 내적 상상력을 이용한다. 판타지 문학의 가치 중 하나는 우리의 경험과는 아주 동떨어진, 완전히 급진적인 그 허구성이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판타지 문학이라는 등불은 책 바깥의 세상에 빛을 던져 줄 수 있다(Veith 233-4). 판타지 안에 드러나는 이야기의 해결점을 통하여 우리는 희열을 맛본다. 주인공의 승리, 참된 자기 모습의 발견을 통하여 극적인 결과를 누린다. 결국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너무 쉬운 낙관이나 침울한 회의로 일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주신 삶의 진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결국 다가올 결말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좋은 판타지는 결국 삶의 교훈이다. 그러나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경험이다.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주입해 그들의 상상의 세계를 파괴할 필요가 없듯이 판타지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일상에 갇혀 함몰되어 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판타지문학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전도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좋은 판타지 문학의 지속적 등장을 기대해 봄도 좋을 듯 하다.

참고 문헌

김서정. 『멋진 판타지』. 서울: 굴렁쇠, 2002.

최종수.『기독교 문학 고전의 이해』. 서울: 현대지성사, 1997.

Armitt, Lucie. *Theorising the Fantstic*. London: Arnold, 1996.

Bettelheim, B..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Vintage Books, 1976.

Bosma, B.. *Fairy Tales, Fables, Legend, and Myths*. 2nd. N.Y.:Teachers College Press, 1992.

Burson, Scott R. Burson & Jerry L. Walls. *C. S. Lewis & Francis Schaeffer: Lessons for a New Century from the Most Influential Apologists of Our Time*. Downers Grave: IVP, 1998.

Calvin, John.『기독교 강요』.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Clyde, S. Killby.『C. S. 루이스의 기독교 세계』. 양혜원 옮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Frye, Northrop. *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82.

Gallagher, Susan V. and Lundin, Roger.『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김승수역, 서울: IVP, 1995.

Hooper, Walter Hooper. *C. S. Lewis: A Companion & Guide*. New York: HarperCollins, 1996.

Kuyper, Abraham.『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Lewis, Clive Staples.『나니아 연대기』. 햇살과 나뭇꾼역, 서울: 시공주니어, 2001.

_____.『예기치 못한 기쁨』. 강유나 옮김, 서울; 홍성사, 2005.

_____.『천국과 지옥의 이혼』. 김선형 옮김, 서울: 홍성사, 2003.

_____. *The Pilgrim's Regress* .Grand Rapids : Eerdmans, 1992.

_____. *An Experiment in Criticism*. Cambridge: Cambridge UP, 1999.

Manlove, Colin. *The Fantasy Literature of England*. London: MaCmillan, 1999.

Nicholai, Armand M.. 『루이스 vs. 프로이드』. 홍승기 옮김, 서울: 홍성사, 2004.

O'Brien, M. D.. *A Landscape with Dragons*. Quebec: Northern River Press, 1994.

Ryken, Leland. *Cul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Portland: Multnomah Press, 1986.

_____. 『기독교와 문학: 세계를 바라보는 창』. 권연경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Schaeffer, F. A., "Some perspectives on art in the Christian imagination," in *Essays on Literature and the Arts* by. L. Ryken(ed.), Grand Rapids: Baker, 1981.

Sire, J. W.. *Discipleship of the Mind: Learning to Love God in the Ways We Think*. Downers Grove: IVP, 1990.

Stott, J.. *Favorite Psalms*. Grand Rapids: Baker, 1988.

Timmerman, J. H.. *Other Worlds: The Fantasy Genre*. Bowling Green: Bowling Green Universiy Popular Press, 1983.

Tolken, John Ronald Reuel.『반지의 제왕 완역편』. 한기찬역, 서울: 황금가지, 2001.

Veith, Jr. G. E.,『그리스도인 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희선 옮김, 서울: 나침반 1994.
Walsh, B. J. & Middleton, J. R.. *The Transforming Vision*. Downers Grove: IVP, 1984.
Woodrow, Ralph.『다시 읽는 반지의 제왕』.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Wolters, Albert M. 『창조 · 타락 · 구속』, 서울: IVP, 1992.
_____.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1985.

<참고사이트>
dragonraja.net/novel
fantasy.gazio.com
fantasypia.x-y.net
godsnet.wo.to
ifantasy.hihome.com/ifantasy.htm
www.sijo.co.kr./cybermoonhak